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8년 포어 §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요 3:16-17, 창 12:3. 마 9:35)

† 행동 지침 †

- 1.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는 거룩한 교회
- 2. 계대를 잇는 믿음의 가정들의 보편적 공동체
- 3.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적 교회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www.seoulchurch.or.kr>

 **소전지서 강해 - 나훔**

피의 성

(나훔 3:1~19)

원로목사이종윤



나훔 선지자는 본문에서 바벨론이 무너진 것처럼 (계 18:2) 니스웨도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18장에는 “화로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다가 19장에서는 “할렐루야”가 터져나옵니다. 이것은 땅에서 바벨론이 심판을 받으니까 하늘의 백성들이 기뻐한다는 의미입니다. 니스웨의 멸망을 사도요한은 환상으로 보았고, 나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했습니다.

1. 니스웨의 죄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1절).

니스웨의 대표적인 죄는 폭력입니다. 니스웨는 나훔 선지자가 피의 성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사람을 많이 죽인 잔인한 도시였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니스웨가 할라이 병정 600명을 칼로 목을 쳤고 3천명의 포로를 붙에 태워 죽였으며 앗수르나괴루팔이라는 왕은 수르 추장의 피부로 베갯잇을 만들었고 그의 몸의 남은 것으로 베갯속을 만들어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잔인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니스웨의 또 다른 죄는 속임수와 약탈이었습니다. 니스웨는 생산이 없는 소비도시로 순전히 남의 것을 빼앗고 도적질을 해서 연락을 꺾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웃나라의 은과 금을 노략하여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했습니다(2:9).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4절).

니스웨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망하되 수치를 당하면서 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 지은 백성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십니다.

2. 노아몬처럼

“네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돌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8절).

노아몬은 히브리어로 노 아몬이라고 읽는데 앗수르 사람들에게는 니브라고 읽혀지고, 헬리어로는 디오스 폴리스(The city of Zeus)로 읽혀집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은 데베라고 읽는데 데베는 오늘날 나일강 동편에 위치한 카르나트 룩소를 말하는데 바로 이곳을 노아몬으로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노아몬은 정치적인 명성은 물론이고 방어벽이 대단했습니다. 나일강이 바로 앞에 가로 놓여 있고 티그리스강은 니스웨의 바로 앞에 있습니다. 노아몬은 입지조건이 좋아서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안전한 요새로

자기 자랑이 대단한 교만한 도시였습니다. 노아몬이 망할 때 쬐에 애굽은 구스의 통치하에 있었고, 붓(리비아)과 루빔은 나일강 상류에 인접한 국가들로 서로 동맹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노아몬을 도왔으니 노아몬이 얼마나 세력을 떨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몬도 결국은 망했습니다.

나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을 드셨을 때 노아몬도 망했는데 니스웨 정도는 문제가 안 된다고 말합니다.

“너희가 노아몬보다 어찌 낫겠느냐. 노아몬도 망했는데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인간이 쌓아놓은 철옹성도 하나님의 심판앞에서는 힘없이 무너질 뿐입니다.

3. 바벨론도 망할 것이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 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14절).

나훔 선지자들은 이들이 방어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방어를 하라고 도전적으로 말합니다. 물을 길어 강을 만들고, 산성을 아무리 높게 쌓아도, 벽돌로 튼튼하게 벽을 쌓아도 인간의 노력은 모두가 쓸데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같이 하리라 네가 느치 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 어다 네가 메뚜기 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다”(15절).

백성의 수가 느치같이 메뚜기같이 많다 할지라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칼을 드시면 그 많은 백성들도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수나 능력을 믿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믿으라는 것이 나훔 선지자의 간절한 호소인 것입니다.

“앗수르 왕이여 네 목자가 자고 네 귀족은 누워 쉬며 네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18절).

목자는 지도자, 귀족은 모사(counselor)를 말하는데 이들이 누워 쉬다는 것은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니스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쳤을 때 니스웨는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사람도 회개한 사람은 용서하시고 다시 받아 주십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목을 곧게 하고 버티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그 곧은 목에 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마10:22).

세상과 야합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구원의 반열에 서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2018 겨울 성경학교 · 수련회

유년·초등부 : 1월 25일(목)~27일(토), 아가페 타운
 중·고등부 : 1월 26일(금)~27일(토), 아가페 타운

부 서	일 시	장 소	주 제	강 사
유아부	2월 25일(주)	서울교회	카다쉬 놀이터	김은숙 전도사
유치부	3월 4일(주)			
유년부	1월 25(목)~1월 27(토)	아가페타운	Stand up!	박미라 전도사
초등부				
중등부	1월 26(금)~27(토)	아가페 타운	고통중애 (高痛中愛)	최승원 전도사
고등부				
청년1부	2월 8일(목)~10(토)	아가페 타운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속으로!	심우진 목사
청년2부				

농어촌 100교회운동 · 비전2020운동 후원현황

그 동안 중단되었던 농어촌 100교회 운동(1구좌 10만원, 1/2구좌 5만원) 후원과 비전2020운동(1구좌 1만원) 후원을 2018년부터 다시 실시하며, 한 가정 한 선교사 운동을 계속 후원한다. 후원신청서를 사무국에 제출하면 된다. 성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농어촌100교회 후원자

- 1교구 : 조순엽 (1/2)
- 2교구 : 최형열(김찬진) (1/2)
- 3교구 : 이상우(홍성혜) (1)
- 4교구 : 김광민(박민숙) (1)
- 7교구 : 차도훈(남태영) (1)
- 8교구 : 서문석 (1/2)
- 9교구 : 한상준 (1/2) 최봉애(한명주) (1)
- 11교구 : 한대석 (1/2)
- 12교구 : 장윤기(노애리) (1) 임상현(1) 정희순 (1/2)
- 13교구 : 임광호(김정미) (1) 김지수(김순진) (1/2)
- 14교구 : 차영도 (1) 박정자(1) 최미경 (1/2) 김정열 (1/2)
- 16교구 : 백도환 (1/2) 노제현 (1).

(다음 주 계속)

비전2020운동 후원자

- 스테반회(2) 권사회(5)
- 1교구 : 이강진(이신재)(10) 이옥수(1) 조순엽(1)
- 2교구 : 정치은(김영현)(3) 최형열(1)
- 3교구 : 김명심(성선규 성지영)(3) 김종철(1) 김형배(1) 박진주(2) 백훈(1) 송인권(1) 양옥자(1) 이성우(홍성혜)(1) 이순례(1) 최임수(2)
- 4교구 : 김광민(박민숙)(1) 김규태(2) 민의랑(1) 박복순(1) 유건호(1) 유명석(1)
- 5교구 : 김복희(1) 김혜연(박은영)(1) 하인선(남태순)(1) 홍혜란(3)
- 6교구 : 민순구(이영희)(1) 황병석(2)
- 7교구 : 남영주(1) 차도훈(남태영)(1)
- 8교구 : 김광옥(서영희)(2) 서문석(3) 손태현(3) 유병욱(1) 한정원(1)
- 9교구 : 김진숙(1) 신항범(1) 오정수(이영희)(5) 이남성(1) 지성철(3) 한상준(2) 홍순복(1)
- 10교구 : 김경희(1) 진돈(1)
- 11교구 : 김양숙(1) 서명철(1) 안인호(2) 조원영(1)
- 12교구 : 김수호(1) 노문환(1) 서상근(2) 오광환(1) 위성남(1) 유외숙(1) 임상현(5) 장윤기(노애리)(1) 최광성(이정연)(5) 최유현(5) 하혜심(1)
- 13교구 : 김순진(1) 서은석(김미성)(1) 오만옥(박미영)(1) 임광호(2) 장창수(박혜정)(2) 최원석(박길희)(1)
- 14교구 : 김광래(3) 석상화(1) 송인덕(이홍숙)(1) 안선희(1) 최미경(1)
- 15교구 : 신모란(2) 정춘혜(1)
- 16교구 : 김정희(2) 노제현(3) 정복순(1)

(다음 주 계속)

- 전 성도 성경 읽기표 -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 일	1년 1독	확인	1년 2독	확인
1월 21일	주일	출애굽기 8~10		레위기 24~27	
1월 22일	월	출애굽기 11~13		민수기 1~4	
1월 23일	화	출애굽기 14~16		민수기 5~8	
1월 24일	수	출애굽기 17~20		민수기 9~14	
1월 25일	목	출애굽기 21~23		민수기 15~19	
1월 26일	금	출애굽기 24~26		민수기 20~24	
1월 27일	토	출애굽기 27~28		민수기 25~30	

성경통독표가 오늘부터 주보 삽지에 한 달 분량으로 나가므로 순례자에 있는 표는 참조만 하면 된다.



교회회복을 위한 기금 기부자 명단

안선광/고영숙 한나여전도회 최현인 유동인 맹주은 무명 1인

(다음 주 계속)

* 기부금 입금 계좌 :
 신한 110-481-143925 노문환(서울교회장로회)

연말정산 안내

· seoulch@hanmail.net

위의 이메일로 ①성명 ②주민번호 ③전화번호 ④주소 ⑤ 가족합산여부를 적어 보내주시면 연말정산자료를 파일로 회신하여 보내드리겠습니다.

· 문의전화 : 02-558-1106(담당: 송미라 권사)
 * 제공된 개인 정보는 연말정산 후 삭제합니다.

교회 주차장 사용 안내

수요예배, 찬양예배 후 신속한 출차

수요예배와 주일예배 시 지하주차장을 개방하여 이용하고 있는 가운데 차량 위원들의 지시를 따라서 질서 있게 주차하고 있다.

다만 수요예배와 주일 찬양예배가 끝난 후 주차장 정리를 빨리 할 수 있도록 자동차를 먼저 지상으로 옮겨주기 바란다.



매 주일 12시 40분 (2부예배 후, 504호)

중 · 고등부 자녀를 둔 부모님이나 손자녀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군복무자 · 입대 예정자 기도회

매일 첫째 주일
 오후 3:30/802호

자녀가 군복무중이거나 군복무 예정인 모든 성도 · 가족들을 환영합니다.

2018 신년 기획 기사

소위 관상기도에 대한 진단과 대안(2)

오늘날 한국교회에 이단과 사이비가 판을 치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지 않으신 비본질적인 기독교 프로그램들이 횡행하는 이 때, 우리 성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근거하여 미혹하는 영들을 분별해야 할 것이다. 아래는 관상기도에 관한 글이며 필자의 허락을 받아 요약 정리한 것이다.

(편집자 주)

관상기도는 신사도들에 의해서도 매우 증진되고 있고, 신복음주의권에서도 매우 유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레노바레의 리처드 포스터와 The Message를 쓴 유진 피터슨이 바로 그들이다.

1. 관상기도의 의미

그리스어로 관상은 '하나님을 보다'라는 어원을 가진다고 한다. 이는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관상기도는 직관의 기도라 할 수 있으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직관적으로 인식하고 사랑하게 된다고 한다(이세영, 이창영, 향심기도 수련). 키팅 신부는 "관상이란 내적 병형의 과정이며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대화이자 우리가 동의만 한다면 신성한 일치로 이끌어주시는 대화"라고 하였으며, "생각과 말과 감정을 초월하시는 궁극적인 신비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신과 마음 즉 존재 전체를 개방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즉 "우리 안에 계시며 호흡보다 더 가까이 계시며 선택보다 더 가까이 계시며 우리의 의식 자체보다 더 가까이 계시다고 믿는 하나님께 우리의 의식을 개방한다"고 한다. 관상기도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이며, 공부나 수련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체험이라고 한다. 체험과 깨달음은 수련을 통해서 얻어지며, 수련 없이는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한다고 한다.

2. 관상기도의 배경

동양적 신비주의 사상과 가톨릭 신비주의를 물려받은 것 중의 하나가 현대 관상기도/향심기도이다. 관상영성이 복음주의 교회로 들어오게 된 것은 70년대 세 명의 수사들(토마스 키팅, 윌리엄 매닝, 버질 페닝턴)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들은 종교 통합적인 가톨릭 신학자들, 일주일간 불교명상 피정을 제공한 동양 선의 대가인 조슈 사사키, 초월명상을 가르친 트라피스트, 수사였던 폴 메리첼 등을 수도원으로 초청했다. 가톨릭 수사들과 동양 명상가들의 대화를 통해 가톨릭 관상기도는 평신도를 포함한 다양한 계층의 신자들이 손쉽게 훈련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졌다.

향심기도(Centering Prayer) 또는 '듣는 기도'라고도 불리는 관상기도는 "1970년대 초 미국의 한 트라피스트 수도원에서 영성에 목말라하는 현대인들을 위해 가톨릭 전통의 관상기도를 대중화하려는 노력에서 시작되었다. 향심기도는 우리 존



김성봉 목사
(한국 성서대학교 초빙교수)

“

**겉모양이 같다고 해서
속도 같은 것은 아니다.
겉모양은 같더라도
속의 정신과 내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기도방식을 도입할 때에
배경을 살펴서
조심할 필요가 있다**

”

재의 가장 깊은 곳에 현존하시는 하나님께로 가는 지름길인 동시에 우리를 관상기도로 이끄는 첫 단계 라고 한다. 이 기도 방법은 하나의 권위가 없고 단일화된 가르침도 없다. 대부분의 스승들이 중세 신비주의, 힌두교, 불교의 영성 교사들을 인용한다. 이처럼 관상기도가 불교와 힌두교의 영향을 받은 것은 명백하다.

맺음 말

지금까지 통용되던 기도 분위기에 대하여 새로운 기도방식에 대한 요구는 정당하다고 여겨진다. 부르짖는 기도만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늘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는 기도도 좋은 기도일 수 있다.

하지만 겉모양이 같다고 해서 속도 같은 것은 아니다. 겉모양은 같더라도 속의 정신과 내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기도방식을 도입할 때에 배경을 살펴서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 관상기도와 관련해서는 로마가톨릭적인 배경 뿐 아니라, 이교적이고 혼합 종교적인 배경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렇게 그 배경이 확인된 이상 앞으로 더 이상 이런 분위기에 편승하지 말고 성경적인 가르침과 전통 안에 머무르는 것이 영적으로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겠다. 굳이 그런 위험성이 있는 관상기도가 아니라도 성경의 교훈을 살펴 고요히 묵상하며 주의 뜻을 헤아리는 기도를 얼마든지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고 박순봉 권사를 추모하며



신자 되기 원합니다



고 박순봉 권사

이용선 원로장로

평생 주님의 몸되신 교회를 섬기신 아내 박순봉 권사의 아름다운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모태신앙을 가지고 태어나 평생 주님을 섬기며 살면서 특히 고향의 동포들을 위해 기도하고 애쓰는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아내 박순봉 권사는 평생을 찬양대원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찬양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녀는 늘 '신자 되기 원합니다'라는 찬송가를 부르며 참 신자가 되기를 갈망했습니다. 고향인 북한땅에서 공산주의를 강요당하자 석 달만, 삼 일만, 아니 세 시간만 신앙의 자유가 있는 곳에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결국은 남쪽으로 피난을 와서 남은 평생을 마음껏 주님을 섬기다 주님의 품으로 갔으니 아내 고 박순봉 권사는 진정 행복한 사람입니다.

지금 주님 품 안에서 안식하고 있을 고 박순봉 권사는 지금도 주님 옆에서 사랑하는 서울교회와 서울교회 성도들과 저 북한 땅에서 하나님께 애소하고 있는 북한동포들과 이 나라에 전쟁이 없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연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 하셨으니 고 박순봉 권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마음껏 누리다 가셨습니다.

늘 고 박순봉 권사를 사랑해주시고 기도해 주신 서울교회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님의 딸 고 박순봉 권사를 품에 안으신 주님을 찬양하며 또 천국에서 아내를 다시 만날 날을 소망합니다.



장윤기 집사
(유년부 부장)

지난 2017년 2월 5일 유초등부 어린이들과 함께 1층 웨스트민스터홀 옆에서 예배를 드린지 1년이 되어갑니다. 당시 유초등부 학생 30명, 교사 15명이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기쁨이 넘치는, 풍족하진 않지만 감사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년이 흐른 지난 주일, 비록 교회 입구가 막히고 소란스러운 일들이 있었음에도 유초등부 학생 73명, 교사 28명이 701호 유년부실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매주 부흥하는 유초등부를 바라보며 저희 유초등부 교사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편, 유초등부 어린이들에게 더 좋은 예배와 행사와 프로그

램을 제공해 주기 위해 기도하고 고민하고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도와 정성을 모아 이번 겨울 성경학교를 준비하였습니다.

유초등부 겨울성경학교는 25일(목)~27일(토) 2박 3일간 아가페타운에서 진행합니다. 그동안 유초등부 겨울성경학교는 항상 교회에서 1박 2일간 진행했지만 지난 여름성경학교에 이어 이번에도 교회 밖 아가페타운에서 합니다. 특히 1박 2일이 아닌 2박 3일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좀 더 여유로운 시간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이제 믿음이 시작되고 정착되는 유초등부 어린이들에게 확고한 믿음을 갖게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아름다운 자연속에서 쉬를 얻고 서로 친교하고 교제하며 교회를 사랑하고 친구들을 이해하는 시간도 허락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겨울성경학교의 주제는 "Stand up!" 입니다. "일어서라"는 단순한 의미가 아닌 "불의한 생각과 세상의 유혹에서 당당히 일어서서 나오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주제에 맞게 유초등부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준비하였습니다.

유·초등부 어린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께 많은 도움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준비된 프로그램, 오고가는 여정, 날씨와 안전을 위해 그리고 서울교회의 일꾼들로 성장할 유초등부 어린이들이 성경학교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로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겨울수련회 초대 글 : 중·고등부 연합

고통중애 (高痛中愛)



정현구 집사
(고등부 부장)

이번 중·고등부 겨울수련회가 1월 26일(금)부터 27일(토)까지 아가페타운에서 열립니다. '고통중애(高痛中愛)'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수련회를 기도로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선생님들과 학생임원들이 함께 재밌고 유익한 프로그램들을 서로 제안하며 참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련회는 말씀의 시간뿐만 아니라 조별활동, 레크레이션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간 부족했던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소통과 교제의 시간도 마련하였습니다.

평소 중등부 학생들은 고등부 선배들의 이름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었고, 고등부 학생도 이와 마찬가지로 이번 중등부와 고등부가 함께 참여하는 수련회를 통해 많이 친해질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와 학원 일정을 하루 잠시 접고, 우선순위를 세워 수련회 참가 신청한 학생들을 보며 대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선택이 선하고 즐거운 결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는 수련회에 중·고등 학생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성도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7 여름 수련회 전경

동정

■ 금주의 식사 : 6교구 황병석 집사 김영숙 집사 가정 (범사에 감사하며)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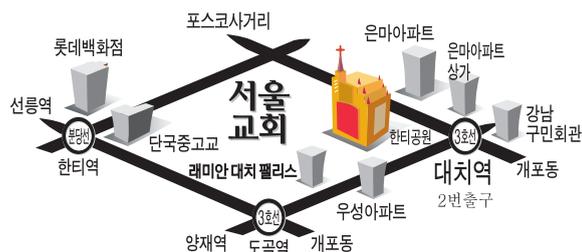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2. 금주에 있는 유년부·초등부와 중등부·고등부 겨울수련회를 통하여 믿음의 자녀들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3. 한가정 한선교사 운동, 비전2020운동, 농어촌100교회운동을 통하여 민족과 세계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배	오후 2시	
	찬양 예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20분	8층(802호)
수 요 예 배	II 부 예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세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매일)	인터넷 영상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